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TEN orders shuttle tanker trio backed by \$250m of charters

그리스의 TEN사는 3척의 장기용선계약을 체결한 뒤 최대 3척의 셔틀탱커를 한국조선소에 발주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유럽의 메이저 선사인 TEN사는 DP2 수에즈막스급 탱커에 대한 용선계약을 최근 체결했고 해당 선박의 건조가 한국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조선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보도됨. (TradeWinds)

Scrubbers story will still hold true for shipowners playing the long game

스크러버에 대한 단기적인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다고 보도됨. 다수의 항만통제국(PSC)가 개방식 스크러버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스크러버 세척수의 환경오염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됨. 현재 스크러버의 평균 가격은 200만달러 수준이라고 보도됨. 폐쇄식 스크러버만이 장기적인 게임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Tiger Group set to exercise \$1.2bn Yangzijiang options, predicts analyst

중국 최대 민영 조선사 Yangzijiang이 Gerry Wang의 Tiger Group으로부터 Dual-fuel 선박 16척, 약 12억달러 규모의 건조계약을 수주할 전망이다라고 보도됨. Yangzijiang은 LNG선 8척 및 14,000TEU급 컨테이너선 8척 등 총 16척에 대한 옵션 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황으로 알려짐. (TradeWinds)

Noble Energy expects most curtailed volumes back online by end of July

미국의 세일업체 Noble Energy가 유가 회복이 더디다는 이유로 7월 말까지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밝힘. 2분기에도 지속된 시황 악화로 하루 평균 11,000배럴 가량의 생산량 감축을 진행했다고 알려짐. 또한 회사는 1년 예산의 53%를 삭감했다고 보도됨. (Upstream)

두산그룹, 3조 자구안 이행 가속화...향후 전망은

두산그룹이 자산 매각을 통해 3조원 규모의 자구안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됨. 마무리 단계에 이른 두산솔루션(7,000억원), 클럽모우CC(1,800억원), 두산타워(8,000억원) 등이 모두 매각되면 전체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선다고 보도됨. 두산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메카텍, 모트롤BG, 두산건설 등도 매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됨. (뉴시스)

임금협상 난항 현대중공업 노조, 올해 4번째 부분파업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2019년 임금협상 난항으로 9일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고 보도됨. 이번 파업은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지난해 임금협상이 일 년 넘게 속도를 내지 못하자 노조가 벌인 것이라고 보도됨. 회사는 이날 노조 파업 규모가 생산에 큰 차질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추정했다고 보도됨. (연합뉴스)